

## 진술 조서

성 명 : 김은지

주민등록번호 : 950203-2222114

직 업 : 회사원(김&장)

주 거 : 서울 성동구 무학봉18길 7 (1층)

등록기준지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22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010-4670-4075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피의자 성명 불상에 대한 준강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7. 27. 19:00 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성명불상과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피해자인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우려 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나요

답 : 네 (김은지)

문 : 피해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나요.

답 : 네, 여기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사본하여 기록에 첨부하다.)

문 : 피해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나요.

답 : 아니요 (김은지)

문 : 피해자는 가명조서를 희망하나요.

답 : 아니요 (김은지)

(이때, 본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안전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문 :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안전조치를 희망하나요.

답 : 아니요. 일단은 신청을 하지 않고 수사관님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피의 자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문 : 피해자는 금일 무슨 일로 경찰관서에 방문하셨나요.

답 : 당시 준강간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러 왔습니다.

문 : 사건발생일과 장소를 기억하나요.

답 : 2022. 7. 6. 00시 15분 경 정도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골목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문 : 피해자는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답 : 파란색 원피스이고 위에는 프릴이 달려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답 : 흰색와이셔츠에 양복바지였습니다.

문 : 피의자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심답 :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문 : 피의자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답 : 원래 제 지현이라는 지인과 만나기려 했었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블라인드 어플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지인이 19시까지 올지러 올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시 10분쯤 피의자가 술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문 :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답 : 서로의 직장, 무슨 일 하는지, 대학교, 나이, 대학교 때 어떤 동아리했는지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문 : 집 주소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나요.

답 : 그런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와의 관계가 어땠다고 생각하나요.

답 : 당시, 이성적인 교류가 있지는 않았고, 술자리에 저랑 지현이가 마주 보고 앉았고 선착순으로 남자들이 오는대로 앉다보니 우연히 제 옆자리에 피의자가 앉았습니다.

문 : 그렇다면 술마시는 당시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소위 말하는 썸타는 기류는 없었나요.

답 : 네 커플 술 게임도 하지 않았고, 전혀 그런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문 :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세요.

답 : 그 날 제가 당시 피의자의 지인이 소맥을 1:1비율로 타서 술을 좀 과도하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피의자가 오기 전부터 취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않지만, 제 친구와 피의자의 지인이 서로 같은 대학교라서 피의자의 지인이 제 친구를 많이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22시쯤 됐고, 제 친구가 집에 가겠다 해서 피의자의 지인이 제 친구를 챙기겠다고 해서 저랑 피의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때, 저는 이미 좀 취한 상태임에도 습관적으로 술을 훌쩍훌쩍 계속 마시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22시 20분부터 23시 55분쯤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이에 피의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위 시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 : 피해자의 평상시 주량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십니다.

문 : 피해자의 주사는 어떤 것인가요.

답 : 저 주사는 귀소본능입니다.

문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술을 어느 정도 마신 것 인가요.

답 : 그 날 일단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소맥으로 계속 마시다가 소주로 바뀌서 마셨습니다. 취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소 소주 두 병 이상은 마셨던 것 같습니다.

문 :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제 친구, 피의자, 피의자의 지인 총 4명입니다.

문 : 피해자는 술을 마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 : 을지골뱅이집입니다.

문 :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온 시간은 언제인가요.

답 : 정확하진 않지만 23시 55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 :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올 당시 누구와 나온 것인가요.

답 : 제 지인과 피의자의 지인은 먼저 귀가를 했기 때문에, 저랑 피의자 둘이 나왔습니다.

(이때, 본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당시 CCTV사진을 보여준다)

문 : 피해자가 보기에 해당 사진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맞나  
요.

답 : 네 맞습니다.

문 : 가게에서 나온 이후부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세요.

답 : 일단, 피의자가 저한테 나오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밖으로 나와서 피의자가 걷는대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노래방에 들어갔고, 제 옆에 피의자가 앉았습니다. 노  
래방 안은 엄청 컸고, 이런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 노래방 밖으로 다시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이 끊겼다가 저는 벽에 밀착 되어 있고,  
제가 피의자한테 ‘하지 말아라 하지말아달라’ 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면과 느낌으로는 제가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압박이  
저한테 와서 저는 벗어날 수 없었고, 엄청 안 좋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다시 기억이 끊겨서 제가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  
지만, 택시 안에서 제가 안쪽에 앉았고 제 옆에 피의자한테 앉았던게 다시 기  
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피의자가 어느 곳에서 내렸고, 저는 제 주소  
지를 택시기사한테 말한 뒤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인데 제가  
집에 옷과 속바지만 입은 채로 누워있었고, 팬티가 제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  
니다.

문 :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답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한테 나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거

같아 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문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 : 일단,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팬티가 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음부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니까, 위에 말했던 장면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어디를 갔었는지 술집부터 해서 동선을 따라 다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장소가 맞고, 그렇다면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또렷하고 ‘하지말라’ 라고 한 기억이 분명하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 성폭행을 당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답 : 골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나요.

답 : 무언가 페인트가 많이 칠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이 약간 있었습니  
다. 그리고 제가 벽에 밀착되어있는데 피의자가 뒤에서 성기를 제 음부에 삽  
입했던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와 피해자가 위 장소로 가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피의자가 어딜 가자면서 걸어가길래 제가  
따라갔습니다.

문 : 골목에 들어가서부터 성폭행 과정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해주세요.

답 : 기억이 정말 안나지만 장면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게, 제가 벽에 밀착 되어있고 저는 계속 ‘하지마 하지말아달라’ 라고 말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제 외음부에 상처가 있고 팬티도 나와 있는 것을 보아 피의자가 제 음부에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문 :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가 가방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나요.

답 : 제가 정신이 있었다면 제가 속바지를 입기 전에 팬티를 먼저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속바지는 그대로 입고 있는데 팬티만 벗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외부에서 팬티를 벗을 일이 없는데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가방 안에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팬티를 벗겼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피의자한테 원하지 않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가 성폭행을 하기 전이나 하는 중, 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저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이 부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가 성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답 : 뭐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인 기억이 더러웠습니



다.

문 :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당시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나요.

답 :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피의자는 택시에서 제 기억에 택시기사랑 택시요금을 가지고 흥정을 했던 것이 분명 기억이 나고, 피의자는 저랑 카톡한 내용에서 오후 4시부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와서 만취했다고 하지만, 피의자가 저희 술자리에 왔을 때는 몹시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문 : 피의자의 성폭행 행위 당시 거부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반항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기억은 안나는데, ‘하지말라’ 라고 의사표현을 한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문 : 피의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있나요.

답 : 신체적으로는 외음부에 상처가 생겨서 연고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좋지 않다고 알려진 사후 피임약을 먹어서 몸도 안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위 피해 사실에 대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길거리를 걷더라도 남자들을 보면 무섭고, 피해다니게 됩니다. 피의자 때문에 일상생활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문 : 피해자는 현재 육체적으로 아픈 곳이 있나요.

답 : 아픈 곳은 없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 잠을 잘 못자서 현재 우울증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문 : 피해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답 : 고소장 뒷편에 첨부자료로, 진단서 첨부하였고, 정신과를 다닌 진단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문 : 피해 당시에 피해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나요.

답 :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는 범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떻게 행동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세요.

답 : 저는 너무 심각해 가지고 ‘경찰서 가야될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피의자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너 말 듣고 나 골프 시합 망쳤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했습니다.

문 : 피해자는 피의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내역에서 산부인과 비용 청구 기록이 있었는데 청구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 그거는 피의자 때문에 제가 아팠던 것이고, 제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 접수와는 별개로 피의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있고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를 하셨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고소를 한 이유가 있나요.

답 : 제가 늦게 신고한 이유는 문을까, 신고할까 혼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고 전에도 경찰서 민원실에 와서 상담도 받았는데 뭔가 경

찰서에 오니까 무섭기도 했고, 사건이 진행되면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혼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언론에서도 성범죄사건에 대해 말하고 그 때마다 사건 발생 그 날이 생각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한 뒤에도 제가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 : 피의자에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나요.

답 : 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문 :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친구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의 친구를 본 관서에 참고인자격으로 조사시키는데 동의하나요.

답 : 네 동의합니다. 친구에게도 말해놨습니다.



### [ 협박 ]

문 : 이후, 피해자는 당시 본 수사관과 면담과정에서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후 카오톡을 통해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준강간 사건 이외에, 협박 건으로도 추가적인 수사를 원하시나요.

답 : 아니요 괜찮습니다.

문 : 당시에는 협박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가적인 수사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사건 발생 당시에는 제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의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에 협박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지금은 성폭행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공포심 보다는 ‘위에 말한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한거는 다 거짓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없습니다.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지)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네 사실입니다.

(김은지)

문 :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김은지)